

## 비다, 나이지리아

### 비다 도시의 공예와 민속예술



비다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고대도시로, 2021년 공예 및 민속예술 도시로 선정되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의 회원이 되었다. 비다의 전통 기관들은 옛 왕국의 유산을 이어받아 왕족인 에츠 누페(The Etsu Nupe) 가문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도시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하에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선출된 집행 의장(시장)이 이끌고 있다.

비다라는 이름은 니제르(Niger) 강 유역에 운집한 비다코(Bidako) 마을들의 한가운데에 성벽을 쌓았던 비니(Bini)족의 족장에 의해 지어졌다. 약 12마일 길이의 붉은 진흙 벽이 랜준(Landzun) 강둑에 있는 비다코 마을들을 둘러싸고 있다. 이 도시에는 4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성벽의 아주 일부분만이 남아 있다. 술레자(Suleja) 마을로부터 비다(Bida)로 들어오는 길에는 아가이(Agaie) 마을의 이름을 딴 방가이(Bangaie) 문이 있고, 카두나(Kaduna) 강에서는 카두나 강변의 마을 이름을 딴 우야(Wuya) 문을 통해 비다로 들어



오게 된다. 또다른 문들은 방보기(Bangbogi)와 방바라(Bangbara)가 있다. 이 문들은 동쪽과 북쪽으로부터 비다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가던 과거의 무역 경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비다 도시의 주요 종족은 원래 누페(Nupe) 혈통이다. 비다는 에츠 누페(왕)(the Etsu Nupe (Emir))가 이끄는 누페 왕국의 본부 역할을 하는데, 그 왕국은 아가이(Agaie), 라파이(Lapai), 레무(Lemu), 파테기(Pategi), 쿠티기(Kutigi), 모콰(Mokwa), 도코(Doko), 밧데기(Baddeggi), 카차(Katcha)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비다에는 반우야(Banwuya), 와다타 궁전(Wadata Palace), 방가이(Bangaie), 방보기(Bangbogi), 방바라(Bangbara), 비다 연방 공과대학(Politechnic), 하지야 파티마 롤로 하우스(Hajiya Fatima Lolo House), 하지야 라디디 식당(Hajiya Ladidi Food Canteen), 라마투 당가나(Ramatu Dangana), 우체국, 세인트 존스 학교, 가장 오래된 바닌-비다 회당(Banin-Bida Mosque), 시장들, 랜준(Landzun) 강 외에 많은 명소들이 있다.

비다 사람들은 11세기부터 이어져온 유리 공예, 금속 및 황동 세공, 목각, 직물 직조, 라피아 직조, 전통 음악과 노래 등 예술에 뛰어나다. 비다의 공예 창작 단계에는 마사가(Masaga) 유리, 츠와타 무쿰(Tswata Mukun) 알루미늄, 그봉보푸(Gbongbofu) 황동 세



공, 도코자(Dokodza)의 금속 세공, 말파(Malfa) 직물 직조자, 그바그바(Gbagba)로 알려진 다코앗사(Takoassa)의 목공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있다. 또한 민속 축제, 음악, 춤, 그리고 노래로도 유명한 도시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더르바르(Durbar) 축제와 누페의 날(Nupe Day)이다.





식민지 이전 시대의 도시 경제 활동은 이미 14세기 초에 말리 송하이(Mali Songhai)제국, 가나의 아산티(Ashant) 제국, 보르노의 카넴-보르누(Kanem-Bornu) 제국과 같은 여러 강대국들과 유리, 황동, 은, 철 세공품 무역이 이루어졌다. 그 공예품들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수도구들과 전통 용광로를 이용한 수제품으로, 특히 유리 제조 기술은 기원전 2천년경의 고대 이집트 유리 예술에서 이어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나이지리아에서 공예와 민속 예술의 선도 도시인 비다는 한국에서 열린 2022 진주 세계 민속 예술 비엔날레의 국제 무대에서 공연했다. 우리 도시는 에츠누페 그반도 왕실 악단(Etsu Nupe Gbando Royal Band)과 전통 앙갈레(Angale) 여성 무용수들로 구성된 에츠누페 민속예술단을 선보였다. 진주비엔날레에서 에츠누페 민속예술단은 전통 춤과 찬양 가창, 명언들, 전통 누페 음악과 누페 속담 낭송 등을 공연했다. 그반도 밴드와 앙게일의 합동공연은 비엔날레에서 다른 국제 그룹들과 함께 기쁨을 선사했다: 미국 켄터키주 파두카의 휠하우스 루스터스와 세스 머피(Wheelhouse Rousters and Seth Murphy), 이집트의 아스완(Aswan) 민속극단, 필리핀 바기오의 생야 카사이(Saeng ya Kasa) 문화 앙상블, 인도네시아

아 암본의 카이홀루(Kaihulu), 태국 수코타이의 전통 무용, 부르키나 파소 와가두구의 나바 암가(Naaba Ambga) 예술 앙상블, 한국의 진주검무 등이 함께 공연했다.

흥미롭게도, 축제 기간 동안 열린 UCCN 공예와 민속 예술 부문 네트워크 연례 회의에서, 회원들의 창의적 분야 교류 세션을 통해 성공적인 융합과 협업을 경험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곳의 향토 요리를 맛보고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들은 진주에서 얻은 최고의 경험이었다. 축제에서 선보인 무형문화재는 포용적 성장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조화와 화합 속에서 예술적 창의성과 문화 민족의 진정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억들은 2022 진주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가 전통 지식의 가교이자 수호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음을 입증한다. 진주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있는 평화로운 도시, 다양성을 창의성의 기반으로 삼는 위대한 유산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 문화 공연들을 위한 시연들과 워크숍들,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펼쳐진 야외무대 공연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 공통의 목표에 한걸음 다가선 시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UCCN에 가입한 새로운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로 공예와 민속 예술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즉, 적절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하고, 통합 워크숍 수업의 결여, 자금 결핍, 보조금 지원 기회 부족, 기술적 지원 부재, 신규 도시를 위한 구체적 실행 설명서의 부족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프란시스 은다지사 소콤바

(비다, 포컬포인트)